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회

2013학년도 제4차 회의록

구 분	평의원수
의원 정수	11
재적 의원	11
출석 의원	7

1. 회의일시 2014년 2월 4(월) 오전 10:00 ~ 11:00
2. 회의장소 천안본교 1층 회의실
3. 참석의원
의장 : 이을순,
평의원 : 정봉영, 최홍섭, 유학수, 김유생, 김연주, 김창연
4. 불참의원
평의원 : 한정희, 전은선, 안승찬, 이영심
5.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6.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7. 회의 안건 : - 201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2014학년도 예산안 자문

8. 회의 진행

의장 이을순

대학평의회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2013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금번 회의 안건은 201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학년도 예산안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간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정옥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및 교비회계자금예산서 등을 배포함.]
[2013학년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예산항목과 2013 예산안 원안 대비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201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상 특이사항과 2013학년도 예산 대비 변동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설명함]

의장 이을순

개교 후 네 번째의 추경과 다섯 번째의 예산안입니다. 매년 정확한 예산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직원들은 한마음으로 균형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평의원들께서는 먼저 추경 예산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의원 최 홍 섭 (인)

평의원 정 봉 영 (인)

평의원 유 학 수 (인)

평의원 유학수

수입측면에서 보면 본예산보다 약 13% 증액된 73억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금 수입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늘려 잡았으며, 전반적으로 시간제 등 수강료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었으나 국가장학금이 당초 예측보다 117% 늘어 이 같은 결과를 시현하였습니다.

지출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차이가 난 곳은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로서 연구학생경비가 당초 예측보다 약 35% 늘어서, 관리운영비 예산을 약 27% 감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김창연

13회계년도 초 홍익장학금액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등의 정책으로 연구학생경비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가장학금 규모가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이같은 결과가 발생되었으며, 타 대학의 케이스를 더 조사해 봐야겠으나 전체 예산 대비 52%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불균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평의원 정봉영

올해에도 학생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장학혜택에 의지한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의된 2013학년 추경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책정하는 것으로 자문하는데에 찬성합니다.

평의원 김연주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 이을순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

그럼 2013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책정하는 것으로 자문의견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의원 최 홍 섭

평의원 정 봉 영

평의원 유 학 수

평의원 유학수

신입학 정원 860명 편제정원 3025명이 되는 2014학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교 4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먼저 출범한 메이저급 사이버대학에 비하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더구나 작년의 사이버대학 정원 동결과 올해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정원 감축의 움직임 등 본교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여건 하에 2014학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려우나 학생 수 예측은 전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의 재등록률을 85% 선으로 예측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의원 김창연

올해부터는 회계 기준이 변경되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근원으로 하는 수입과 지출은 등록금회계로, 그 외 모든 수입과 지출 심지어 국가장학금까지도 비등록금회계로 나누어 계상하고, 두 회계간의 이동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지라,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본교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 지표와 가까운 교비회계 예산 중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80% 초반에서 중반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추세로 예측하여 전체예산 대비 80%에 가깝게 편성하였습니다.

평의원 최홍섭

연구학생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을 얼마나 예측한 것인가요?

평의원 김창연

잠전 검토하신 추정보다 줄어든 약 48%로 예측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규모는 재학생 수 증가에 따라 순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홍익장학금 수혜금액과 기간도 하향 조정되었고, 대상자도 의보 보험료 10만 원 이하 납부자로 조정된 만큼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의장 이을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신규 채용인력으로 인한 증가를 제외하고 임금 인상 등 비탄력적인 고정경비를 늘리는 부분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에도 교직원께 미안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학교 재정상황이 호전되는 때에 보상할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약속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평의원 최 홍 섭 (인)

평의원 정 봉 영 (인)

평의원 유 학 수 (인)

평의원 정봉영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고 학생 정원 감축 등 어려운 여건을 맞는 만큼 이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미 상당기간 학교운영을 하여 내부 적립금을 많이 쌓아 놓은 학교와 이제 출발한 신생 학교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더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을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정신으로 임해왔고, 여러 난관을 극복했던 노하우와 힘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이번 예산 편성에는 우리들의 그러한 각오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의원 김연주

의원님들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 정황들이 교직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팀의 부의한 2014학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자문하는데에 찬성합니다.

평의원 김유생

저도 찬성합니다.

의장 이을순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014학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자문하는 것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을순

오늘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주시기 바라며, 최홍섭, 정봉영, 유학수 의원께서 대표로 간서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의원 최 홍 섭 (인)

평의원 정 봉 영 (인)

평의원 유 학 수 (인)

위와 같이 회의한 사실을 확인함.

2014년 2월 4일

의 장 이 을 순 (서명)

평의원 최 흥 섭 (서명)

평의원 정 봉 영 (서명)

평의원 유 학 수 (서명)

평의원 김 유 생 (서명)

평의원 김 연 주 (서명)

평의원 김 창 연 (서명)